

黃夫傳

황부인전



行發館書文博城東

inch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Kodak Color Control Patches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3/Color Black

황 부 인 전 단

登錄番	3133
分類番	
圖書番	

전 인 부 황

화설대한말년호령황제시절에형주싸구월산중에일위는시잇스니성은황이오명은
 승언이니용외슈려하야선풍도골이출뉴호고학식이유여하야홍중에던디조화와음
 양지리와항룡복호지술을품어세간에몰을거시업스나산중에은거하야불구문달하
 고청풍명월노벳을삼고그부인위씨로동슈십년의금슬동고지락이홍연하나일죽
 슬하에농장지경이업고년과스십에홍연부인이잉티하니부위희출망외하야싱남키
 를축슈하디라거연이십숙이차미일키녀를싱혼지라부위바라던비여의치못하나
 차역혈속이라연이나녀용외추악하야량안이크게둥굴고입이네모지고안석이프
 르며홍점이만면하니이런하박면누질이라석일무염에박식이천고에유전하나이
 에지나지못할지라쳐스부위녀의위인이비록추루하나슬하적막하디또흔귀중이
 녀기더라이러구려세월이여류하야쇼저의방년이수팔이되도록흔쳐를정치못하미
 부위의석하야왈우리늦게야녀를어더스나책박용누질인고로방년이 지나도록봉
 황에방뉴하노즈미를보지못하니엇지슬프지아니하리오호초창하물마지아니재
 늘쇼제민망하야만단위로하디성으로봉양하야세월을보디니일수는쇼제일몽
 을어드니홍연일위도인이압헤나르러닐녀왈네출광이빈여셋기에나르러스나용외
 추루하므로비우를정치못하니녀의부위슬하하물마지아니홍연아니라넌들비록녀

조의 몸이나 종신대스 와 음양을 모르는 인성이 되니 잊지가련치 아니하리 오하거늘 쇼 제비록 몽중이나 북그리 물먹음 고 왕존스 노어 내 곳에 계시며 무슴 그치실 일이 계시니 잇가바라 건디 존스는 밝히 가르치소서 도인 왕범시 다련 정흔 비라 인력으로 잊지 못 츠리 오마는 조흔 씨를 만나면 즐거 오물 보리니 나의 마르치물 흥홀진저 조연 군조의 비 우를 만나 화락하리 라하 고 왕네 형용을 그리 고 너의 외가 로 다나라 갈 제 타고 가는 교조 에 걸고 가면 중노에 서 필연 물을스름이 잇스리니 여츰츰 디 답하면 그스람이 반드시 구 혼하리 니 이 는 련정 가 위라 네 전성에 월궁 항아로 화용 율티 여려 선녀 중 빠혀 난 교로 마음 이 방자 교 오하야 상 데 게 득죄 하야 저 조흔 흉모를 써스 나 련정 인연을 만나면 쾌락 안 할 거 시 오 또 신훈 초 일 에 너의 군 지 너의 상 되 추악 할 물 보고 마음 이 불 호하야 즉시 제 집으로 도라 가라 할 거 시 니 네 규슈의 슈치를 도라 보지 말고 구 지 붓들고 노치 마라 가 지 못하 게 하면 자연 도 혼일이 잇슬 거 시 오 네 슈단과 괴륜 혼 지 조로 잊지 그스름을 줄 겁 게 못하 리 오 나 는 전세 에 너와 스제 지의 잇기로 특별이 와 나 르느니 브디 가 르치 는 디로 하라 하 고 말을 맞치며 문득 잔디 엽 거늘 쇼 제 흠신 경각하 니 침상 일몽이라 마 음에 마장 신과 히너 거 붓그 러 오물 무릅쓰고 부도의 근심하 시는 마 음을 위로코자 하야 즉시 부모 게 몽스 에 신과 하를 제세 하고 달하 온 디 처스 부가 듯기 를 다하 디 일 변기 브고 신과 히 녀 거 왈 우리 부 뉘너 를 늦게 하 였고 밋자 라 미우 금가 우를 잊지 못하 기로 주야 슬허하 므 로 명현이 불상이 녀 거 스 련정 년분을 일우게 하 시는 도 다하 고 의 일에 널니 화 스를 구하

야 쇼 저의 화상을 그려 족자를 믿늘고 교부를 조아 쇼 저를 티우 고 족자를 교조 에 걸고 외가 위 부로 보내 나라

3 전 인 부 황
차 설 남 양 석 농 중에 일 위 은 식 잇스니 성은 제 같이 오 명은 량이 오 조는 공명이 오 도호는 와 룡니 이 전스에 교위 제갈 풍의 지라 용피 관옥 갓고 풍치 현안하 며 성경 현전과 제 조 박 가 셔를 무 불 통지하 고 흥중에 경천 위 지 지를 품 었더라 형 데 삼인 이니 장의 명은 극이 니 도요는 권의 막 빈이 되고 아오의 명은 균이 니 가 장 어 리더라 제 부 요치 못하 고로 밋쳐 취 실치 못하 고 몸소 밤가 라 자 내며 산 간에 은 거 혼 선 비 들과 벗하야 한 유하 니 영 천 석 광 원과 박 능 최 류령과 여 름 밍 궁 위 등으로 밋 일 상 슈하야 혹 강 호의 노라 옥 인 옥 척을 나가 술 안 주하야 즐기며 혹 명 산 대 찰을 차저도 고 혼 승도 로 강 논도 하 고 혹 소 당에 담 화하야 고금 치 락과 흥 망 성 쇠를 문 락하 니 그 지 취고 상 미이 에 서 지 나 미 업더라 일 스는 공명이 마 촌한 가 하야 초 당에 한 좌라 가 오 슈가 방 농하야 일 몽을 어 드니 일 위로 인이 창 안 학 발 노치 운을 명에 하야 나 려와 당 전하야 월 명 성은 별 내 무 양하 나 공명이 급히 몸을 니 러 마 즈 레 필 좌 정 후 공명이 문 왕 존 성은 뒤 시 완티 어 디 계시며 무슴 그치실 일이 잇서 루디 에 왕 님하 시 쇼 할 물며 공 명 성이라 하 시 문 엇진 연 피니 잇고로 선 왕 그 디 전 성 지 스를 아 지 못하 는 도 다 삼 박 년 전 에 인 간에 탄 성하야 성 속 잘 만 나 지 못하야 아 름 다 온 일 흠을 후 세 에 전치 못하얏기 로 상 데 불 상이 녀 거 스 인 간에 내여 보내 여 성 주를 도 아 일 신이 현 달 하 고 공 명 부 귀를 누 라며 명 슈 죽 빙하 고 화 현 름 각하야 일 흠이 천 추에 만 멸치 아니 케하

야계신지라 다른년에 말고그디 지금년과 약관에 달으되 취실치 못하든 아직련정가
우를 만나 지못호년과라 백년량필을 만나 고조하든 명일여차호곳에 가면호교지
닐거시니 그교조에 호족조에 부인화상을 길고 올거시니 그화상은 그교조안에 안존쇼
저의복형이라 비록용모는 추루하나 그되로련정년분을 미절녀지라 세간에 물을거시
업고 그모비계며 무궁호조화를 가졌스니 용식이 추루호를 혐의치 말고련정한가우을
억기오지 말나련여 불취면반슈기앙이라 하야시물빈린들 모르리오내 부인의덕행을
현입어명만련하호리니 명심하야련정을 어괴지 말나형산백옥이진토에 못쳤다가
진토를 버셔나면 광채두우에 쓰이는니라 부대나의 말을 잊지 말라 일후서로만날날이
잇슬거시니 분분호시절에 무앙이지내라 하고 문득잔대 업거늘 오게악々하는 소래에
경각하니 남가일몽이라 마음에 신괴이녀겨 죽시니 당에 드러가량친게 몽스를 세세히
고한대 처스부비만심 환화하야왈우리가 세빈한지치로너를 우금취실치 못호를
러속니가인을 구호길업더니 천만의외에네몽시 비록 허탄하나이난 무심한몽시아
니니야모커나야희는명일 그곳에나아가보라호디성이승명하고즉시일필청마의소
동을다리고길을나행하야호곳에나르니 과연호교재오는디일폭죽재교조우헤겔엿
거늘마음에신괴호지라나아가조세히살피보니 죽조에호녀조의용모를그렸는디형
외유악하야 본바쳐음이라성이일견의마음이차고머리털이숯그러호지라다시성가
하되대장뵈출제하야성현서를비회납신양명하야이현부모호고요조숙녀를취하야

백년을화락하미낭의쾌시어늘엇지저련쥬악호물노쳐실을삼아일실에상대호리
오비록부뵈를호다호나 무어시귀호리오호고이윅히쥬저호다가다시성각호되쳐음
에몽중지억의백옥이진토에 못쳐스니 진이의버셔나면 광채찬나호리라호엿스니후
조교조속에옥인이잇는가하야마음을도로혀문왈이형치취디형차며교조에그죽조
는무삼연고로거렸는뇨교비대왈이형차는구월산중에거호시는황처스되소저의형
차옴고이죽조는소인의되노야의거려주신비니야모련지아지못호는이다생이청필
에또해우되황처스승억은용모종채괴록다호고도학이놈하진토에무드지아니니산
림에비록은복하야스나일々이다칭찬호는비라엇지저련호모지니로나호스리오이
는분명이아라보는스름이잇는가취탁하미라하고마음을쾌히정호후스미안으로셔
한공셔를녀여쥬며왈나는남양쌍제갈량이라하고마음을쾌히정호후스미안으로셔
조하야두루방문호더니련형으로이곳에와맞나니엇지회행치아니리오녀의들은빨
니도라가녀의로야세고호호라호나귀에올나호련이도라가거날교부등이잇거도라
와쳐스게슈말을고호대쳐스부뵈이말을듯고만심환희하야봉호글을써여보니이는
성년월일시를괴록호호는지라쳐시왈이스름의놈호일호를드른지오리더니지금것
취실치아니하얏슬줄엇지엇호호스리오이호는하늘이유의호사지시호미니가위련
정가연이로다그스름이저련호모취호를보고엇지유의호리오이는무심호일이아니
로다호고즉시탁일하야보내니길일이불과슈순이겨호호아라차시공명이집에도라

와남처를 보니 고길일을 기다리더니 일월이 유슈갓트여 어느듯 길일을 당하니 생이길
복을 갓추고 금안벽마에 놓히안조스니 옥안선풍이 연근슈려하니 관광지청선치아니
리업더라 슈일을 행하니 구월산에 이르러 황쳐스되 상에 다다르니 구름차일과 금슈병
장이 가장 찬란하고 복부차환이 성비하니 다라 신랑이 하마를 드리갈시 좌우를 살피보
니 총총옥계에 백화만발하고 잉모공작과 산금아치쌍쌍히 무리지어 섰스니 왕왕이
야화초을 희롱하니 경키 절승하니 별유런디러라 전안석에 이르러 비례홀옥상에 기러
기를 전한후 교비하니 조상을 낳은 후에 처스부스 개비례홀대 처스부위희 불망의
고니외빈객이 슈플갓트여 신랑의 용모 풍채를 칭찬하며 만구치니 처스부비
치하를 스양치아니 코희석이 만안하며 외빈객드리셔로의 노왈저런 옥인근지엇지
하야 이런 무염갓든 취모누용을 취하니 세스를 난축이로 다아마도던 정가연인가하야
저마다이상이 녀기더라 극진환하고 일고도워스되 내외제객이 각산귀가함되 신랑
을 인도하니 그 광채 빛갈대업더라 이에 신방에 드러가니 금슈포진과을 금향취옥을
을 인도하니 그 광채 빛갈대업더라 이에 신방에 드러가니 금슈포진과을 금향취옥을
고옥축이 회황하니 다라이에 전찬을나오니 비록 산중청정호곳이나 산진희물이아니가
진거시업더라 성이 하처하기를 맛츠되 님의야 심흔지라 신위님실하니 생이 몸을이러
마조좌정호후성안으로 드러 신부를슬퍼보니 몸에 금슈홍상을착하고 머리에 쌍봉화
관을쓰고 축하에좌한얏는디 그 용모를보건디 평성처음보는 박색누질이라마음에서

늘하고 황난하니 머리털이흔늘을가라치는지라마음을강잉하니 생각되아모리홍
모누질인들이대도록추악하니오아마도이미가눈을가리는도다하고몸을움작여멀
니안조세세히생각흔즉전일공중의도인이명명이일으기를노중에서만나는교조
걸년화형은비록홍상이나 비옥이진도에못침갓다하니로그교조속에잇는녀조반
다시아름다운규쉬잇는가하고그몽식신과물미더철마이러하랴하고정흔하얏더
니저런괴물이물뜻하얏스리오하고물며나의조작지스니 슈원슈귀리오그러나남
지엇지홍골로처실을숨아비록몸이영귀하하야도그무어시즐거오리오또현정지
사를반디하야던앙이잇슬지라도두릴거시업다하야본심이열화갓치니러나몸을니
러는눈줄세닷지못하고의관을정제하고급히러나문을열치고나오려하니신위북
그림을무릅쓰고생에웃조락을벗들고왈이길흔밤에어디로가랴하시니노잠잔밤을
지니고가심이희롭지아니하오니군조는마음을진정하소서하며뜻치아니하거늘생
이신부의여차무려하고넘나고당돌하니조중아녀조의념치도상함을보미더욱천후
하야추악홍용되더욱홍흔지라생이분과철던하야신부의붓든소미를떨치니소미
둥이찌여지는지라몸을비쳐나오라하니또웃조락을구지잡고짐짓우음을먹고하
성유어로글오되첩이무례무행하고형실지극당돌하니청하옵니군조에의복이만
허상하얏스오니버셔주시면무여진거슬곳쳐드릴거시니잠잔식노하셔고의복을곳
쳐납고가소서하느어음이가장유순하고아리싸운지라또웃을보니동동이떠러지고

꼭々이 씨여 저형상이 만불성안이라 그되로도라가기 싹하고 어려온고로분괴를잠잠
참고엇지하는냥을보려하야마지못하야 옷을버셔주고침석에안즈살펴보니소제홍
촉을도도고침선제구를갓다가노코화저갓치글근바늘에숨갓치글근실노무여지고
떠러진곳을흔데다히고을섭을세여미는것사지드문々々깎는냥을보니분괴다시대
발하나나종을보려하고여지로마음을진정하고안젖더니습시간에깍기를다할후에
속으로어로만저떨쳐노흐며다시두손으로옷을잡고입으로셔하거늘성이분괴를참
고옷을잡간살펴보니상흔의복이여전하야흔곳도다시곳침갓지안흐니침지는능흔
것갓드되옹피홍악하고형식당돌하야신훈초일에신훈남자를붓고긋치아니니체
면과념치를모르느니라장뵈되여엇지저런너즈를취하야남의치소를바드리오하
고옷을넌고다시나오려하니신훈또흔잡고나작이말하여왈밤이임의깍혀손즉오래
지아나날이식을지라밝은후에비록무미흔음식이라도하저하시고형하셔도늦지아
니하실거시어늘대장부희식이대지경술하시리오잠간만지체하시면요괴하실거늘
드리리다하거늘성이싱각흔즉제비북형위는당돌하고체되볼스나가장을위하
마음으로불고념치하오를잠간감동하야마음을적이지정하고거름을떨치고침석에
좌하니소제의상을거드치고나리라다라닭을손슈재살하며불을튀어불속에무더구으
며찬밥을뭇고질녀떡을민들어가지고부엌을가저가는형상이가장홍하고누추흔지
라마음에더러이녀기더니잠시간에흔상음식을가저다가아래히긋거늘괴안시지하

니소담하야평성처음보는음식이만흔지라심중에신괴이녀기고이상함을마지아니
하며하저하니맛시향괴러워구미의맛갑고정결하며복중이상하야인간음식과갓
치아니하고그처음만들제는그리누추하게하던거시막상진찬이가장정결찬난한지
라마음의괴이코도로혀이상이녀겨진식하고싱각하되제비죽조식괴하나대면기
어려오니엇지하리오일후다시차지리다하고몸을너러나오려하며또붓들가하야소
피함을일캧고급히몸을가박하야하야밧그로두어거름을못가셔문득난대업는천근
대충이규홍갓흔넌을버리고소리를벽역갓치르고가는길을막앗스니그세산악가
른지라공명이년괴최소흔썸더라빅면서성이오섬섬약질이러이런디흔을만나니엇
지놀납지아니하리오흔빅이바월하야아모리흔줄모르고정신이흔미하야발을붓친
드시섯더니문득뒤히셔장부야부르는소리나거늘머리를도로혀살펴보니흔녀지집
문을의지하야셔셔나죽이소리하야왈군재조고마흔녀즈를속여여축하라잔다하고
가시다가저가튼불죽지화를당하셔니장차엇지하랴노호하거날공명이즈세히보
니이곳신부황소저라성이크게반겨왈부인은나를구하라부인이미소왈군자흔넌
너마르시고빨니도라오소서하거늘공명이마음을긋게하고죽음을급히도로혀도라
오며머리를잠간돌쳐보니그범이몸을조금도움작이지아니코바라보는지라마음을
적이노코드려오며다시생각하되대장뵈되여흔범을두리워마음에맛지아니하는추
흔흔녀자에게글하야뵈미엇지붓그럽지아니하리오임의돌아가려다가아니가면

또한수치가 될뿐 아니라 장부의 지킴이 무어새 쓰리오니 비록 다 시범을 만날지라도 인명이 재현하니 아모리 모진 짐승인들 제멋대로 소름을 히는 리오 고문을 들다가 성각하니 이에 밋치미 몸을 도로 돌쳐압길 노향하야 보니 그대 흉은 잔디엿는 지라 마음을 퍼고수리는 나아가다가 우연이 머리를 도로 쳐보니 그 집문이 오히려 뒤혀지지 아니케 잇는 지라 대경의 흉하야 왈 내 그 집을 떠나온 지이시하야 수삼리는 왓실듯한디 그저그 집문이 뵈니 고이호도 다하고 또 흥하야 십여리는 가서 또 바라보니 그집이 그저 퇴고집 압히창송록 죽이며 청계벽석과 싸혀난 봉만이 금수병을 들넋듯하야 경키 절승함이 무릉도원 같은 곳이 일호도 다르지 아니지라 아모리가 려하야 도그 곳을 떠나지 못하고 잇는 지라 마음에 대경의 리하야 생각하되 이러듯함 미반다 시부인의 신술인가 보나 내 비록 장귀나 아니자만 갖지 못하니 만일이러듯함 다가는 도로 허화를 만나라니 마음을 도로 힘만 갖지 못함 다하고 몸을 도로 허황부도로 오니 신귀니 러맛거늘 공명이 좌정후신부를 향하야 정색 칩왈 그대 불법과 념치를 모르고 다만 조고만 혼재조만 밋고가 군을 적게너겨 괴로이 보척기를 능사로 하나 이엇지례행가녀 조의 형을 비리오이 그 디에대인 청덕을 손상케하미라 가히 답도 다 소제붓그려움을 먹고 피석대왈 첩이 전성 죄악이 심중하와 차성에녀 저되여나 오나 남과 갖치 못함 개흉모누 질로 삼겨나서 부모게 무궁한 근심을 갖치오니 불효막대하온 중녀 조의 년과이 팔이로 되월노승미절 그악이 망연한지라 누이런 추용누질노가 연을 의논할지잇스리오 또 첩으로 말하야도

무론남녀하고 출어 세상하미 남가녀 혼은인지상서어늘 지어 소첩하야는 인륜이 설혀 질지라 부모의게 다만 소첩일신뿐이라 주야근심이 첩의 신상에잇스오니 불효무궁할 썬더러 첩도 또한 공규의 늑을 줄노아 랐더니 홀연의외에 신몽을어드미 신인의 그르치논 말이 신과하고 명명하니라 몽중신인의 지교되로 부친이지교되로 부친이여 츠츠하얏더니 과약기연하야 군조의 구혼하물엇스오니 부모의 환희하시미 극한 실뿐아니라 첩에마음에도 불효를 면하을지라니 심에히 흥하옵더니 군저이러듯 념피하스시 혼초일에 환타하시라 하온 즉 첩에 전정은 아조일을 거시 업살뿐아니라 부모에 슬허하실 바를 생각하오니 오니 봉넬하니라 스세여 초혼고로 스체와 슈치를 불고하옵고 조고만 피술노 군조를 유련코저하오미니 죄스무척이로 소이다언과에 안색이 쳐연하고 추파에 물결이 동하논지라 생이 청필에 감동지심이 홀연 뒹동하야 스로 생각하되 저러듯 혼고는 성음과 레모의 유순함이 성니 숙완이 오절되가 인이라 도이에 서다하지 못할지라 가련하도다 저긋은 흉모를 쓰고 출제하미 무슴 전생죄악인고아마도 전일몽중로션에 일은 말이옥이 진도에 드렸스니 진이를 버스면 광채 찬난하리라 하얏스니 필경은 무심치아닐듯하니 두를 보리라하고 마음을 저이 진정하야 잇튼날 밤을 기다려 옥축을 도고 침석에 누엇더니 밤이 깊기애니 르러몸이 심히 곤니 혼지라 침석에 잠이 깊혔더니 촛제악하하소리에 연홀경하하야 살펴보니 신귀일작드러와 축하에 단좌하얏스니 옥용화되 축광에 현황 찬난하야 진짓경극지색이오그런 흉모박색이 잔디엿는지라

불각대경하야 급히 몸을 내려 갖가 이나 아가 그 옥슈를 잡고 문왈 그디는 엿던 부인이 완
디이 좌석에 단좌하셔 노생과 결혼한 황부인은 어디가고 그디가 안젓는고 패히닐너 성
의마음을 시회케하소서 쇼제염용 피석디 왕첩은 과연 다른사람이 아니라 군조로결친
혼화씨로 소이다첩이 전성죄악으로 흉측한 허물을 쓰고 출세하야 부모의 근심과 소첩
의 신세를 상제게 읍셔 공측히녀기스금야에 공중으로셔 홀연하녀 일성이나 더니 일위
선관이나려와 옥제척지를 전하며 대초만혼약일키를 주며 일으되네 전성에 지은 죄
가 잇는디 화용월티너 모싸혀난고로 방자교만혼죄뿐이라 특별이스하사 네얼굴을 회
로도복게하셔스니 차후는 너의가 군으로더부러 무흔이화락하라고 고을나가거늘 신
괴이녀겨즉시그환약을향다에라 먹엇더니 홀연일신이 변하야 전일형상이 업셔지고
이모양이 되엿는지라 그스이 군제잡이 김흐시므로 그지닐바를 모르신가하느이다 성
이 청필에 만심환희하고 가장 신괴이녀겨 몽중인 지생신지처다지 못하고 다시금보니
천덕만염이 스벽에 조요하고 요조숙덕이 출어외모홀지라 성이 불승희형하야 인하야
옥슈를 낫그러 비취금에나아가 운우지락을 일우니 무산에 양왕에 굶이 무르독아견원
지정이 흡연하더라 나일청신에 부위 단소를 맞천후쳐스부스개문안하니 처스부위 두
굿기물마지아니 홀썬더라 남풍녀되차등이 업셔 군자숙네가 위일쌍비위가 되엿는지
라 처스부스에 환희하든 일호도 말고 상하노수과 천척런리다 신괴이녀이 고이상이녀
기더라 삼일이 지닐후 권귀하야 구가로 올석위의를차려가니 남녀노비 전차후응하고

성이 청녀에 안저후비하야 가니 도로 광평지청찬치아니리 업더라 슈일을 형하야 구가
에니르러 현스당지네를 맞고 안돈하니가 세부요치 못하고 초옥이크지 못하야 범석구
간터라 쇼제일스동스촉스하야 처산하물 못밋칠듯하니 상하노비를 인의로 부리니 일
가 천척과녀항린리드리 청송치아니리 업더라 공명이 부인의 형위와 천덕만염이 쇼원
에지나고 쇼제납승후는가 세가점스초승홀디성이 그아오군으로더부러 몸소 농업
을 힘써하니 것천밭치기름지고 백곡이년스이 풍드하더라 홀가흔새를 당하야 여러고
봉으로더브러 산슈승디에노라시부를 창화하야 지괴를 퍼더니 일스은봉우로더부러
종일홀유하다가 도라와괴석이올스불나하거늘 부인이 문왈 군지무슨 근심이게사불
호지석이 현어외모하셔니 감문기고하느이다 성이 침음주저하다가 왈 그디도알거니
와명일은죽나의조도일이라니녀러천봉으로더부러심방하미자연천우의집잔치마
다출네하기를만하하얏는지라 성은홀번도천우를청하야디점지못하니마음에항상
붓그러온고로 자연마음이 불호흔괴석이나라나미라하거늘 부인이 소왈그만미세지
사로군지심녀를과도하하셔니 천심이엇지평안하리잇고 옛말에 군우신욕이라하얏
스니 군자의근심하셔는배곳첩의근심이라 군자는 녀네처마르시고명일모든천봉을
청하셔면다만박쥬일비라도디점할거셔니 첩의말을허탄이아지마르쇼셔성이청과
에묵고셔당에나와성각하되저의본집이유여하니 변동하미잇는가하나 길이초원
하니명일엇지밋츠리오필연미리선동하미잇는가하나 만심의혹하며천봉등의게통

괴하야 청하니라 차시 부인이 술법을 행할 시 축곡을 오촌되게 슈삼십기를 썩거 부작을 써 부치고 진언을 냄하야 야심기를 기도려 정중애 다 더 지니 다 잔디 업더니 삼경 후는 하야 난디 업는 남녀 비복수 삼십명이 일시의 무어 슬니 고 지고 드려와 청상에 노으니 이노 다 진수 성찬이 오가 식지 물이라 이노 다른 일이 아니라 차시 조정에 승상 조되 일국 권세를 오로 지잡아 현대를 해창에 가도 고만 조공경을 임의로 출척하며 사방 정벌을 마음 디로 하니 그 권세련하에 진동하는 지라 잇때는 동심월 망간이라 조조의 모친 슈신을 당하디 대연을 비설하야 만조공경을 청하야 즐기니 사방에서 진궁하는 산진히 물이 되고 처싸히미 진수 성찬을 산고 처차렸스니 아나가 진거시 업고 일호미 진하미 업더라 이 날 부인이 도술을 행하야 그 피고 처싸히 성찬을 쓰기에 합하게 슈운하야 오게하미 러라 명조에 공명이 외당을 소쇄하고의 편을 정제하고 빈객을 마 절식 천봉고 귀물 싯듯 하야 모히여 좌정네 팔에 차를 마신후 시부를 지어 창화하고 고 담준언으로 단락을 시비반을 드리니 금은 옥귀에 진수 성찬이 만반성비하야 아나가 진거시 업는 지라 빈객이 만좌하야 저마 다 눈이 붓글고 남이 버러서로도라도 보며 가장 신과이 녀여 공명을 향하야 왕존형의 가계 부요치 못하출은 우리 다 짐작하난 비라 엿지이다 지성비하게 츠리뇨이느 필연형의 부인의 비상 지지로 말미암으미라 형을 위하야 치하하노라 또 혼외이 글오되 형의 악장 황승언은 음양디리와 신과 묘산이며 무궁하술법이 스람이 밋지 못하다 하니 형의 부인이 그 지조를 비혼가하노라 또 일인이 글오되 이노 그러치아니 타

부인의 자되 엿지그런 현묘하술법을 비호기쉬오리 오이느 공명형이 비올가하노라 공명이 미급답애 또 혼변이 일오되 공명형이 혼취하야 권귀흔 지슈삭이로되 혼변도 나아 가지아니코 화쳐시 또 혼오지아니하얏스니 술법을 엿지 비앗시리 오분명이 공명형이 실내게 비혼비로다 또 혼스람이 날오되그 안히아모리고 명하술법이 잇스들그 압히 무릅쓸살고 스썩여 배와 스리오 또 혼스람이 웃고 왈 오늘날 우리 등이이러듯 즐기미다 공명형의 부인의 덕인 가하노라 하고 취흥이 도도하야 디 소하며 희락하거늘 공명이 흡소와 제형의 희롱하노말이지기일이오미지기로다 석일 초흔적 장자 방도 철산도 스의스희되야그 안히부인의게도 술을 비와스미자 방이 비록그 부인게 굴슬치아니하 여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드러 신과 하술법을 비호고 황석공을 만나미 황석공이 자방의 정성을 알고자하야 다리에 안자다가 신을 다리아리셔르치고 잡어 신기라하거늘 자방이 잡어 신긴 족 짐짓 또 썩르치고 잡어오라하기를 습차를 혼후그제야 날오되 내너를 천서삼권을 줄거시니 명일 새벽에 일즉이오라하거늘 나일미명에그다리로갓더니 천성이발서와안자다가 장량다려 늦게오를척하고 또 명일에 일즉오물당 부하거늘 자방이그늘보다일즉갓더니그 천성이또몬져와안저 늦게오물디척하고 또 명일오물당 부하거늘 자방이그늘은 습경때에 자지도아니하고갓더니오린후에 천성이와서그제야 천서삼권을 주며닐너왈네이척을주느니 잘숙독하야 성주를 만나일흔을 후세에 전하라네 정성이 지극하기로 전하노라하교가니자방이그척을어든후은주유

악한야결승천리지외는술법을비화하고조를도와향우로던하를닷를적에선출
귀물호묘척이사람이밋치리업고향적을구리산에에웠을때명산추야월에옥동
소훈곡조에강동자데팔천인이일시에호터지니장중에잠든패왕이홀연이돌나때
여우미인으로더브리비가강지호후한티조는던하를평정하야부귀를누리게하미
다자방에힘이라비록그러나공이너므큰지나종이위티키쉬은고로명철보신하
하야적송자를싸랐노니슬프다회음후는그가튼창업공신으로삼죽이멸하얏스며
널업고무의훈범중은철십칠세에패왕을조차전진에나올때에그안히말녀왈니비록
녀지느잠잔듯자오니패왕의사람되오미련하에무적이라음아줄타에천인이자패
고력발산기키세는영웅이나성품이어지지못하야심리를범하며스름을살히기
를조화하며남의잔하는말을듯지아니하고나의고집되기로필경티업을일우지
못할스름이니나가죽지마르소서하디범중왕의장위임의사람의게하심하엿거늘엇
지안닌자의말을듯고언약을배반하리오하고죽시향우를죽차단니며평성배흔지조
를다하야섬기나언불청계불용하는지라홀일업서탄식고집으로도라오다가다시
싱각하니녀자의게큰말을하고하산하얏다가이제도가무슨면목으로상디하
리오하고말을도로혀평성으로도라오다가저발배이스하니그안히의금석지언을
듯지아니코나와다가오심년슈학을헛곳에도라가니엇지원통코슬프지아니하리
오또공부자갓든디성인도본디성인이아니라그모친의선심을바라던하디성인이되

신지라그티등은훈가장부의위명만유세하고녀자의지혜는아지못하니이후에항복
할지잇스리라고고담준론이장강티히갓고도량이티산교약이라만좌빈직이막불
흠단하야공명에높은언논을키기충복하더라배반이낭자하야광주교착하며옥배
를날녀종일진환하디일모서령하고육되동녕에오르미파연하고각기귀가하니라
공명이반귀올다보시고니당에드러가부인을보고치스왈아지못케라오늘날무슨
도술노잔치를거룩하하야너러봉우의게청송을밧고성에광색이밧나니니평성원
이죽하고노치난지라부인의은덕이적지아닌지라엇지다치스하리오부인이념용티
왈군자의울스불락하시논괴색을보오니첩의심시엇지혼안하리오시고로마지못하
야부득이괴술을행하얏스오나온당치하나는이다공명왈엇지홀죽절노그러릇
성찬을성비하엿는뇨부인왈과연다른일이아니라금일이당금조정에디승상조죄
협천자이령제후하며일국권을오로지잡아만조를장약중에너허싱스출척를님의
로하미스방에납되지물이어산악히흔지라저의모친싱일이금일이온디만조를청하
야삼일티연을배풀식산진히물과진슈성찬이되갓흔지라저의탐남하야납공하노물
건을좁은게온들무슨관게되오리잇가이림으로조고만술노취하야온배라군자는첩
의스술노취물호히물을용서하소서싱이청과에차경차희하야왈부인에술법은가히
괴특다홀거시오가장을위하야부득이헛흔일이나군자숙녀의정리아니라이왕지스
논이의라다시논이런비레지스를헛치마르소서부인이칭스왈군자에교훈하시논말

숨이 당연한 신지라 다시는 그런 괴술을 행치 아니하리이다 공명왕성이 부인을 성천후로 여려 번 신괴술법을 보았스나 이는 다 미세지술이라 군무지수를 배풀술법이잇거든 형술하야나를 뵈미엇더하뇨 부인이 침을 양구에 왈근저 보고자하시뇨 바에 첩이 이와 알고 칭탁하야 시험치 아니하면 이는 승술군자하뇨 녀형이 안인고로 명일 시험코자하오니 군자는 고이히 내기 지마르소서 하고 익일에 오색 조희로 기치를 믿들고 초목으로 말을 믿들고 나무로 창검과 고각을 무슈히 믿들고 후원 갑흔 곳에 드러가 팔보식씩여 방위로 버린 후에 동서 남북과 간방 팔방에 팔문을 믿들고 포덕을 지어 모리한 좀식너헛스며 그 것히바름 풍자를 써서 팔방에 못고 또 돌을 무덕이 지어 팔면에 못코 그 돌무덕이에 도바람 풍자와 모리 샷자를 써서 돌속에 너흔 후 부인이 그 돌싸흔 다가 만이나아가 무산글자를 써서 못고 도라와 목마에 목인을 치우고 또 목인을 세우락 안치락하며도 술을 행하니 홀연 금고 함성이 진동하며 돌무덕이 속에서 무숨고이호소티나며 광풍이 되자하야 비스쥬석하니 목인 목미스스로 죽어느러진 것갓쳐 우히 구러지고 남은 거슨 산분괴하야 다라나나스면 팔방이 다 첩첩봉만에 석벽이 막히느디 음풍이 쳐쳐에너러나고 운위자옥하야 불분지척에 동서 남북을 분변치 못술네라 하니 지는 후비록 소련디 회양하야 일광이 명낭하며 바람이 것치니 이는 부인이 술법을 거두엇더라 공명이 부인의 이런 신괴 술을 보미정신이 현황하야 만스 청소왕 부인의 신출귀몰호지조는 고금에 회한하니 만일 남조로 출세하던들 명주를 만나 동정서별하야 스이를 평

정하고 출장 남상하야 문호를 창홍술거슬에 석도다녀조로나서 귀종의 공노하리니 어이가 석지아니하리오하더라 일일은 공명의 악장 황처녀의 혼변구가로 권귀후후변도 귀령치아니하미그리는 마음이 급하야 건녀서등으로 공명에 장상에나르러셔 부부를 보니 공명 부위마조 반기며 그스이 존후를 못조온 후 주찬을 나와 관디하니 그부녀의 그리던 회포를 서로 펴며 설화담담하더라 처시도라 갈시 공명이 그 악부를 싸라황부에나아가 머므러도학을 힘써 숙독할시 공명이 본디 총명다지흔지라 문일지십하야 상룡던 문하고 하달디리하며 세상사를 무불동지하니 처시특이녀겨이중하미극하니 공명이 또 환감은하야 천성부모조 처녀이다라 학습흔지 슈월만에 악부모게하저하고 집으로 도라와 부인을 반기고 일일 화락하야 세월을 보니 갈시 어언 간광음이 홀홀하야 녀려 추취지나미조녀를 년성하야 농장지경을 보니 부부의 금술동고지락이 무궁하더라 공명이 그아우관으로더브러 농사를 힘쓰니가 세점점 부요하미하가하물타명산승지를 초저녀러 봉우로더브러 시부를 창화하며 넘천의 흥미 무궁하니 갈턱씩적한 민이 오고 산영슈의 소취의 조취를 싸라 회황세계에 혼민이 되어 청풍 북창하에 혼가이누어스며 흑탄금장소하야 소일하니 선학이 정중에나라와 곡조를 맛초아춤을추니 봉늑 방장에 맑은 선경이이에 서다하미 업고 제전 백해스를 시싸라 푸여 암향을 토하니 경기 절승하미도원과 방불하더라

각설이여는 혼현데 건안 실록년하스월이라 혼실종천황숙좌장군의 성정후류비에조

논현덕이라탁군장비로더브러도원에서런디게제하고삼혈위밍하야결의형데하야
런하를범보듯하고대의를잡아쇠미현한실을붓글고조하니런시를아즉만나지못하
야형제외로오며인화를만나지못함시중애큰뜻을품었는고로강키지심이밍동
하야탁군에서너러나황건적을멸할공보잇스나조정이혼탁하야상별이분명치못
하야현달치못하고공곤하야스면의분주하다가형류포의게의탁하야신야소읍에
몸을붓쳤스나본성이관후장지라위인이릉봉지조슈슈과슬하고관인후덕하니인
심이열복하나스름이밋치붓쫓지못하야산벽소현에의지하야조정스를성각하미
조아만에전관담남하야현실을숨길뜻이잇스나아즉딱가밋지못하미라현덕이조조
를소제할마음이잇스나힘이부족함을한하더니체모의흥게를버서나단계를뛰여
건너슈경현장상에셔현덕에의명을드릿스나처닷지못하고또만나지못하얏더니
외의에노상에서엇던스름의노리를듯고그스름을청하야군스를숨아군정을의논하
고괴모를운동하야조병을파하미조죄되경하야무르되엇던스름이류비를도아우리
군스를파하논고정육이임의아는배라티왈이스름이다른나아라영천서제라학식
이유여하고재죄과인하더니스름을위하야보슈하라하야스름을상하고성명을곳쳐
관복이라하야활활버서나강호의유락하다하더니근리드르니류비의군식되엿다하
더이다조죄차언을듯고차단왈이스름의지죄그디에게비하면엇다하하고육왈니엇지
그스름과엇지비하리잇고조죄왈어진스름이류비를도아우익이되니일후티환이되

리로다정육왈셔셔논지효의스름이라그노피이애잇스니그모친에천서를어더보니
여도라와승상을돕게하면엇지류비를조심하리잇고죄되회하야셔셔의모친을청하
야셔간을닷가보니여셔를불너오라하니셔피츠언을듯고되로하야즐욕하니조죄또
홀더로하야죽이라하거늘정육이간하야쫓치고정육이셔모의필적을모방하야위조
셔간을민드려셔셔의게보이니셔제보니스의간절하고슬프며필적이일호다르미
업스니아니가면불효재될지라일견에유체여우하야부득이황숙을보고올며고왈
세장군의후은을납어공업을세운후장군에은혜를갑고조하얏더니성심이현박하
야부득이니별케되니슬픈심스를엇지하리잇고현덕이청과에탄식유체왈선성이도
라가니비엇지할고비록그러나인성세간에이효위복이라영조위조적의게욕을당하
시고천찰노불으시니인재되여엇지일신들견델리리오선성은조금도유력치말나비
논선성이간후님산하야삭발하리다언과의눈물이옷깃살적시논지라셔제또현을
며하직을고하니현덕왈하로를머무러비의미현정성을퍼개하미엇다하노하고주찬
을나와통응하고마지못하야일야를유숙하고초일에셔제하직을고하니현덕이또주
찬을나와작별하시셔제와방축이어저러워술이능히인후를넘지못하리로소이다현
덕이취루왈인재되여엇지그러치아니리오하고삼리정에전별하시셔로체읍상별하
후셔제상마하야체를쳐헹하니점점머러가논지라현덕이놓흔언덕에올가논디를
바라보다슈목이가러비지아니케늘급히스름으로하야금그나무를작별하라하니

제장이 문왕 무슴일노 슈림을 버히라 하시느뇨 현덕왕내원직에 가는것슬보다가 슈림
에 마리 위되 지야 잇는고로 작별코즈하노라 하시니 셔세말을 처치가 다가 말머리를도
로혀도라 오거늘 현덕이 디희하야 또흐말을 모라마 조는아가셔로 만나 문왕원직이
엇지도로 오노고가지아닐마 음이잇는가셔 세왕엇지그럴니잇스오리잇고흐말을
니젓느이다 다른일이아니라 이또머지아닌곳에호고시잇스니 양々 농준인이라이스
람의성은제같이오명은량이오즈노공명이오도호노와룡선성이니 재죄비상하야홍
중에경던위지재를품어항상관중악의게비하며양보음을오리고불구문달하노지라
장군은정성을다하야비스후례로청하야디스들의논하면엇지도적을삭평하고디업
을일우지못할가근심하리잇고제가노길에가고부락하리이다현덕이디희왕그스
람이선성의게비하면엇드하노세왕엇지그스람의비하리잇고셔의미재로되비홀진
디디반디불갓고공명은호지월광갓든지라만일그재조를비교하려하면유나라팔빅
년디업을창하던강자와호나라창업하던장조방에게느리지아나리니장군은힘
써구하소서현덕이디희왕선성의말이니모과하도하느니라셔세다시리별하고말
을처치가더라현덕이초창하기를마지아니코도라와폐백지물을갓초아공명을보
려하더라

각설셔세나가다가공명장상에니르러셔로불식례필다파에공명왕근일에드르니
그디류례주를도아군시되여조々를과하엿다하느니엇지분유이어디를가느뇨세왕

요스이류예주를만나공을세우지못하엿스나조좌나의조모를가도고부르시느니
이왔스니엇지아나가리오이러므로급히가나류스군에후은을잇지못하야형을천거
하얏스니바라건디존형은류스군외와청하거든추스치말고죽초현하창성을도탄에
건지를바라노라공명이청파에발연디로왕원직은가면갈거시어늘엇지날노써괴상
육을만들나하느뇨하고스미를셜쳐후당으로드러가거늘셔세나연무류하야말을처
처허창으로도라와집에니르러모친을뵈옵고복디비례하온디부인이디경문왕내근
알드르니네류왕숙을만나돕는다하디내깃거니군을엇다하얏더니엇지하야도라
온다세공슈디와과연하오나모친々찰이니르러불으섯기로왔느이다부인이발연디
로하야셔안을치며디디왕내슈년을강호에유락하야학문이널분술아랏더니네어둡
고용렬하미오히려처음만갓지못하고네임의명주를만나시니진충하야섬겨무호를
밧닐거시어늘호조갓거짓셔찰을살피지못하고밝은디를바리고어두온디로오니너
하며목으로너를디하리오하교부짓기를마지아니하디셔세왕공디죄러니이옥고시
비급히나와고왕디부인이후당으로드러가시더니결항하야기세하시니이다하거늘
세대경실색하야급히드러가보니별세하신지임의오린지라고디극통하다가인하야
괴색하니일개황하야구호하야정신을찰여례로써선산에장호후에조죄알고셔々
를불너무슈히위로하고각별후디하나셔세종신도록조々의슈별에잇스나호모친을
베프지아니하니라

각설류현덕이서원적이공명을천거후로부터마음이잔절하야공명을차저가려홀
시관공과홀가지로가려하니장비와소데도홀게가려하니다현덕와네성정이곱지
못하니무례홀가하노라장비와량형장이가시니되소데엇지홀노잇스리잇고홀디현
덕관장이데로더브러와를강을지나홍송을차저갈시좌우를살펴보니산은높지아니
하되싸혀나고물은깊지아니하되증청하며창송록죽은울々창々하고괴화가초며비
금주쉬무리지어왕니하고말은시니는곡々이홀니벽석상의잔잔하니가위무동선계
로다르지아니러라점々차저드러가니모려가정세홀디시문을다닫거늘문전에니아
가말게나려시문을두다리니동재나와못거늘현덕이문와네선성이게시나동재덕와
선성이작일천봉으로더부러는가시고아니게시니이다현덕이초창하물마지아니
코동조드러부락와나의선성이드러오시거든한중실영례주목의성정후황숙류비
와드라고엿주어라동재덕와장군에니르시는허다명조를괴록지못하리로소이다
현덕와그러면다만류비차저와시를고하라동재응낙하라현덕이말게을는관장과
홀가지로도라와슈일이지는후목육계하고또농중으로가려하거늘관장이말녀와
형장이엇지또슈고롭게가시리잇고실상이업는고로보지아니라하미니스름을보너
여볼너오스이다현덕와공명은당세영웅이라엇지무례히청하리오너의는듯지못하
얏는다네주문왕이티공을보려홀제안가스마로위슈변에는아가마자상부를삼아팔
빅년괴업을일헛는니디현을만는라하미엇지무례히하리오이데는가기어렵거든너

홀노가리라관장와형장이엇지홀노가시리잇고하고숨인이말게을나히홀시때맞춤
농동이러슈리는형하야대설이분々하니만산초목이벽해만말홀듯하고옥착견근이
오은키세게러라삼인이티설을무릅쓰고농중에이르러시문을두다리니동재나오거
늘현덕이문와금일은선성이게시나동재덕와금일은선성이게시니이다현덕이티희
하야드러가초당에을는가니호소년이화로의차를다리고안젖다가이러맞거늘현덕
이읍하고와타군류비선생을뵈으라하와전일의맛나지못하고도라갓더니금일또와
서선성을맛나뵈음을어드니만형이로소이다그소년와장군이아마가형을맛나려하
시는도다나의장형은동손중모의막빈이되시고나는중형과동거하는지라중형이
일전에출라하시고집에아니게시니장군이이변도허형이되시니만불々안하여이다
현덕이불승창연와선성이어니날이나노라오실고군와중형의중적은지일치못홀지
라다른날곳쳐왕님하소서현덕와랑차귀장과와맞는지못하니창연홀이엇더하오며
또헛도이도라가기더욱창연홀지라지필을빌면두어즈를괴록하야미한정성을표
홀가하느이다군이문방스오를너여듯거늘현덕이언뜻을입으로풀어슈항셔를써균
을주고작별코말게을는떠나오더니멀리바라보니일인이청녀를타고서동을다리고
빅설을무릅쓰나무다리로지느오며미화시를밟고오거늘현덕이반겨와이논와룡이
로다하고급히나아가비례하고보니창한학발이라문와노인이와룡이아니신가노인
이답례하고와나논와룡이아니라공명에악부황승언이니너또한공명을보려하야

오노라 못느니 장군은 누시니 잇고 현덕이 악연되 왈 소성은 탁군류비라셔 랑을 보라 왓다
 가만느 지 못하고 헛도 이 도라 가나 이다 하고 도라 올식길 가 주점을 지느더니 노리부
 르는 소리를 들으니 현덕이 말게느려 드러가니 두 사람이 탁자에 거러 안저 술먹으며 노
 리 부르다가 현덕을 보고 노리를 굿치고 안저거늘 현덕이 마음에 생각되 이 랑인 중에
 공명이 잇도 다 하고 공경문왕량위종의 누와 통선성이 시니 잇고 기인이 답왈 우리
 공명이 아니라 영천석광원이 오저는 여람명공위라 우리도 공명을 보라 가노라 장군
 은 누시 완덕공명을 보아 무엇하랴 하는 노현덕 왈 나는 탁군류비러니 공명을 보아 제
 세안민지척을 못고 저하노라 이인이 흘쇼하고 셔로 일너 왈 공명이 그 유인을 맛나스
 느 그 석을 맛느 지 못하니 가셔도 다 하거늘 현덕이 그 말을 듯고 심니에 헤오되 이 스를도
 산중비범한 선비로 다 하고 왕량위선성은 소장파흔가지로 혼실을 붓드려 천하창성을
 구데함이 엇더하노랴 인왕우리는 산아에 게어른 선비오 지식이 천박하니 엇지 제세안
 민지척을 알니 잇고야 모조록 공명을 차저 물으소서 현덕이 흘일 업셔 랑인을 이별하고
 점박게느와 광장으로 더 부러 신야에 도라오니 광음이 일염하야 신춘을 당하니
 현덕이 또 공명을 스모하야 복자에 게문복후삼일재하고 공명을 가보랴하니 의
 덕이 분연왕형장이요 마산야 필부의 허명을 못이 듯고 랑차가 시되 제실학이 업는 고로
 피하고 보지 아니미라 형장이 또 엇지가 시리오 소데흔거리노를 가지고 가미여 오리이
 다 현덕이 숙지저왕네 엇지이다 지무레한 말을 하는 노니는 이번은 가지 못하리니 판모

와 가리라 의덕왕 양위형장이 가시느니 소데 엇지 썰러져 잇스오 텃고 현덕왕 현데부터
 가라 하거든 일정부례 처말나 의덕이 응낙고 삼인이 말게올나 형하야 날 양궁중에 너르
 러와 통장상에 다스라느길에서 제갈공을 만느니 군왕금일우중형이 집에 계시니 만나
 시라 이다 하고 총총이 가거늘 현덕은 덕희하고 의덕이 노왕이 스름이 무레하거심하도
 다 우리를 맛나스면 제우리를 인도하야 제형을 회개함이를 거날 제말만하거가니 이런
 도리어 덕잇스리오 현덕이 불열왕 스름이 각자 제소간시 잇셔가거늘 엇지 허물하리오
 하고 형하야 시문압해이르려 삼인이 말게느려 동자를 불너 무르니 동재되 왕선성이 금
 일은 초당에 계시나 낮잠이 바야흐로 갑호시니 이다 현덕왕아직 서오지 말느고 동조
 를 쓰라 초당압해이르려 당상을 쳐다보니 공명이 상요우혜연와 하야으 취방농하얏거
 늘 현덕이 밧게느와 광장다려아직 드러오지 말고 기다리라고 다시 드러와 당에 오르
 지 아니하고 게하에 공슈하고 식경이나하되 공명이 오히려 잠을 쉼지 아니하더니 홀연
 몸을 들쳐누으며 일수시를 읊호니 그시에 왕

대몽을 슈션가고

큰 꿈을 누가 먼저 세는고

평성을 아지 지라

평성을 내가 스스로 알니로다

초당에 춘슈죽하니

초당에 봄조름이 죽하니

창외 일지 지로다

창밖에 날이 더되고 더덕도다

공명이 읊기를 파하고 다시 잠을 들거늘 동자엿조오되 손이와 기다린 지오리니 이다 공

명이 번신하야 이러나며 왈 객이 온지 오리면 엿지 일즉 서오지 아니하 고 이러나 옷을 곁
치리라 하 고 후당으로 들어가더니 또 오린 후 나와 현덕을 청하야 당에 올래 펴 좌정하
미 현덕이 공명을 보니 일골은 관옥 같고 풍채 현양하며 눈길 학창의를 착하 고 손에 백우
선을 드렸더라 차를 파흐 후 공명 왈 존귀이 누디에 왕남하 신지 오리되 몸이 겹나 낫잠이
깊흔 고로 진시 맛지 못하오니 죄송이로 소이다 현덕이 피척스 왈 탁군우 부류 현성의 고
명을 우레 갖치 드른 고로 랑차 진알하 되 정성이 부족하야 맛나 뵈옵지 못하 고 비루호
셔 중에 혼심을 다하얏더니 하 랑하 시니 잇가 공명 왈 저 즈음 계장군에서 종사의를 보오
니 거의 장군의 높흐신 뜻을 알지라 비록 그러는 랑은 산아 농뵈라 무슴대 재잇스리 오헛
된 일홈을 들으시고 나지 무르시나 실노되 홀묘척이 업스온 지라 장군이 헛도이 존가를
슈고 롭게 하오니 불송죄송이로 소이다 현덕 왈 스마덕로와 셔원직이 현성의 뒤명을
일커러 천거하엿스니 엿지 헛되다 하리오 원컨대 현성은 창성을 가렴하야 한실을 벗
드심을 바라나이다 공명이 저 삼츄탁하 고 출산할 뜻이 업거늘 현덕이 눈물을 흘녀 옷
깃을 적시며 왈 현생이 비의 천박한 정성을 불고하 고 출세치아니 시면던 창성을 엿
지 할 고하 고 누취여 우하느니라 공명이 그으극 한 뜻과 정성을 감동하야 이에 스레
왈 장군의 우국이 민하 시는 성심을 보오니 랑의 마음이 실노 감격하 종삼고 지온을 분부
홀길 업는 지라 비록 재죄미하 고 학식이 천박하오니 견마에 힘을 다하야 만일 지은을
갑홀가하느이다 하 고 동자를 명하야 협스중에 홀족자를 니여다가 중당에 걸고 랑이

장군을 위하야 해아리 건덕이 제 조 죄 협던 자 이 영제 후하 가 하진 실노 정봉치 못할거
시오 손권은 강동에 웅거하야 암의 숨세를 지니여나라 하 힘하 고 백성이 가압무니 가히
설화홀거시오 악주는 험색하야 옥야 천리오련부지국이 라고 님군이 아니면 적희지 못
홀지라 유장은 암약하야 능히 조울치 못하니 백성이 붓쫓지 못하느니라 장군이 뜻이 잇
시면 취하야 숨분던하야 정즉지세를 일운 후 장군은 안호로 덩스를 바리히하 고 밧그
로 군무를 다스려 스줄을 무출하 고 랑조를 저치한 후 중원에 틈이 잇거든 일원상장을 명
하야 완낙을 좃차나아가면 중원을 가히 취하 고 한실을 회복할거시니 이는 양이 임의혜
아 린 비오이 족자는 셔천스 십일쥬디도 랑이 장군을 위하야 일은 비나 장군은 익이 성
각하소서 현덕이 청과에 정신이 황연하 고 홀중이 환출하야 부복 칭스 왈 현성의 지교하
시는 말씀들을으니 심담이 상연한 지라 슈연이나 익쥬장은 현실 종친이 오비의 동종
이라 차마 엿지 취하리오 공명 왈 일후 자연 장군 계도라 오리니 염녀치 마르소서 하 고 셔
로 문답이 넘나타라 잇때 관장이 인이 문밧게 잇셔 기다리더니 익덕 왈 형장이 드러가신
지식 경이 되엿스되 소식이 업스니 소데 드러가보리이다 하 고 드러가보니 현덕이 계하
에 공슈하 고 켜는 디당상에 공명이 은와하야 오슈가 방놓홀지라 익덕이 디로 하야 소리
를 지르고자 홀 즈음에 현덕이 뒤히 인적 들듯 고도라 보니 익덕이라 눈물끼이 고 손을 저
어 물너가라 하 거늘 장비 분심을 게오참고 도로 나와 판공드려 왈 형장은 지금 썩지 계하
에 공슈시립하 시고 이놈이 무레하 기래 심하야 당상에 누어시 약심상하니 소데 홀자로

불을제당우에지르면그제아도니라나고아니이러남을보스이다하고분과를이과지
못하야하거늘관공이말녀긋치고또오리기다리더니차시현덕과공명이문답하다가
현덕왈비관장이데로흔게와이제문밧게와셔기다린지오리니이다공명이놀나왈장
군이일즉이말하지아니노하고동조로청하니양인이드러가례한디공명이괴신답례
를명하야쥬찬을나와빈죄등을후현덕이레물을드리거늘공명이고소왈산아비인
이무숨공으로레물을바드리잇고현덕왈이레물을드리거늘공명이고소왈산아비인
이마지못하야밧고스레하더라이러구러말이저물미척반을차려나오니진제찬품과
특이하야향괴롭고괴이힘이시속음식과다르더라척반을과후숨인이공명의장상
에셔조고잇는날일즉이러나조반을과하고공명이현덕과함가지로형하랴홀시니당
에드러가부인을디하야왈형이류황숙의숨고지은을입엇는지라나아가돕지아니치
못홀지니부인은조여를잡기르시고형취는잘하소서나의도라을씨는괴될치못하리
니부인은무양안향하소서부인이초창함을먹음고왈군조의금일형하시미도시련의
라인력으로밧출비아니오하를며류황숙은중산정왕에후예오현경대의현손이니금
황대의숙항이라조정법강이히인하고도적이농권하야스방도적이봉괴하니류장군
이디의를잡아인덕을던하에퍼고조하니그씨를만는지못한지라이제군조의디명을
듯고숨고궁진하야은근호정성이비홀씨업는지라부득이나아가지아니치못홀스제

나군조바록명주는만느시나그씨를만나지못하엿스니가셔하느니호오원컨디군조
는첩에란상가지말으시고전전구치에보중호심을바라나이다공명이스레하고또아
오군의게부탁왈너는황무지적을힘써다스려부지런이하야군석하미염게하랴내류
황숙에숨고지은을보답지아니치못홀고로성공호후도라오리라군이순々응명하고
재비하직홀디공명이초창함을마지아니코가련이몸을이러나와류관장삼인으로더
부러말게을느신야로도라오니제장이마저비레필에데장이공명을보니옥안영풍이
일세괴남지오빅면셔형이라모다의혹함을마지아나셔로이르오되저런년소셔형이
무숨도락과신괴모산이잇관디류공이저리도록혹하시고하더라현덕공명으로더부
러먹으면호상에서먹고조면랍을갓치하디절하미스승갓치하니관장이인이불열
하야현덕게고왈공명은년소호선비라그재락심천을아지못하고여차파례하시니형
장체외손상하시고남이치소할가하니이다현덕이소와양데는다언치말나전일슈경
의말과서원적의말의헛되지아나리니엇지소로이디접하리오관장이밧지아니코물
너나더라홀연보하되조리하후돈조인으로하야금십만디군을거나려신야로나아온
다하거늘현덕이디경하야제장을모호되영적홀모척을의논할시공명이현덕게고왈
소성이처음이에이르려년소재천홀지라스군은소생을미더브리고조하시나제장이
불신지의를품어넣을듯지아니하리나장군의인감을빌니셔야계교를배풀고호령이
설가하느니다현덕왈선성의말이정하내쑈과갓도다하고즉시공명을비하야군스를

숨고인검을글너공명을주어왈제장이만일군스의호령을불청하는재잇스면임의로
처치하라호디공명이공명하야바든후장중에안져하령왈너류공에숨고지은을넘어
부득이하산하는본려산야춘부로지리노든하고학식이천박하는류공이형명을드르
시고종님을맛기시니주공에디은을만분지일이느갑고자할석인검을주시니군를은
스당이업나니제장은나의년소무지함을현의치말고나의병을즉주공에호령이라만
일위령지잇스면의군령시행하리라호디중인이병을듯고면상가하야저마다불신
지의를품더라공명이이에대장을분발할시조운을불너왈장군은숨던군을거느려는
가적군을마져혹쓰호며물너와적을유인하라고관공은숨천군거느려는아가되좌
련은악님이오우련은나구련이니장군은안임에미복하엿다가자룡이적을유인하야
안임을지느거든슈플에불을노와시살하소서하교장장군은숨던군을거느려나구련
에미복하엿다가관공을접응하야시살하라고또미방미축으로연석을안비하라고
고현덕을타하야갈오디주공은놓흔언덕에서양군승패를보소서하교북발하기를맛
치미관장왈우리는다가적군을마져시살하거늘그디는네잇서무슴일을하라고하느
노공명왈주공에인검이이에잇스니병을어괴오지말는현덕이또갈오되전일장자방
이운슈유악지중하야결승던리지의함을듯지못한다만일위령지잇스면의군법시행
하리라하느중인이묵연이되리라관장이장의로는와상의왈우리등은주공을위하야
출역하는슈하라다만녕디로하야일이엇지되는가보아공명과말음이느지아니라하

고각각군스를거느려는아가니라차시현덕이또호령하되조조의군사만흔니과불
적중하느럼네업지아니하디마음에의레만단하더라

니산련이협준하교슈목이무성하거늘좌우다려무르되이지방이무어시노군사디왈
좌편은악임이오우편은나구련이니이다하거늘정히주저하더니홀연일성포향에일
군이죽쳐는아오니위슈디장은상산조룡이라길을막아시슬하거늘호후돈이디소
왈저키아미가튼거시복병이나니엇지두리리오하교조운을마져쓰호더니자룡이말
을도로혀다라느다가다시쓰와차전차주하야안임을지닐시하후돈이전군을지축하
야급히싸로더니우금이간왈장군은군을물너고싸로지마르소서이곳이산되협착하
고슈목이총잡하느니제만일불로치면엇지하리오하후돈왈그디의말이가소롭도다니
엇지요만도적을두리리오너승상면전에서류비제갈양을성금하기로말하엿느니이
렷갓갑하면엇지좁으리오하교군스를재촉하야는아갈시길이협착하야인미게오힘
하더니홀연좌우산상으로셔불이이러는그런무성하수목에붓는며금괴제명하교포
성이런지진동하며좌우산곡으로서양원디장이데출하느좌에는관공이오우에는장
바라각각숨던군을거느려죽쳐는오니하후돈조이저당치못하야다라날재인마불
에라고서로죽바라죽는재부지기수라하후돈조이불을무릅쓰고게오버서는교조
군우편갑도남지아니하니라양장이죽기를게오면하야허도에도라가스스로타이어

청죄하니 죄와 만흔 군사로 뒤엎지저는 군사를 뒤적지 못하고 이렇듯 패하였노니 후
 돈왕소장이 적을 업수히 내려겨우금이 전에 말을 듯지아나 패하였소니 감청소죄로 소
 이다 죄와 장군이 어려서부터 병서를 습득하고 여러 번 전진을 지냈거늘 산천이 험준
 하고 산 뇌협착하며 수목이 무성할 곳에 화공하는 이를 생각지 못한다 하고 왕류비이
 려듯 우익이 숨겨도으니 심복되 환이로다 하고 친히 군을 일으켜 아오더라 잇씨관
 장등모든 장수 조군을 뒤과하고 군과 치중을 무수히 어더도라오며 서로 불너 왕우리공
 명에 년소서성이 물마지안코우섯더니 진짓던 그의 지라 차후는 그 녀를 어기지 못하리
 로다 하고 도라와 공을 드리고 공명의 신과 묘산을 일캅더라 미측등이 주비를 안비하야
 현덕공명과 제장을 마저 승전함을 하례하고 줄길씩 공명이 현덕에게 고왕후돈조인이
 패하야 도라갓스나량이 해아리건디 조죄천히 군을 거나려오리니 조수의 용병은 하
 후돈등과 다른 지라 우리 이런 일편고성을 적히엿고 겸하야 병미과하니 가위과 불적중
 이라 엿지능히 당하리 잇고 이 제신야를 바리고 번성을 가그봉예를 피함만갓지 못하
 니 이다 현덕왕선성에 해아리미을 혼지라 신야벽성이 무죄히 날노말미암아 히를 당하
 리니 엿지가련치아니하리오공명왕성중벽성들에게 일너원종자는 싸라오라하스이
 다 현덕이 스름으로하야금두루일으니 만성벽성드리모다 따르기를 원하야부로휴유
 하고 현덕을 좇더라 현덕공명이 제장군졸과 치중을 거나려신야를 떠나 번성으로 향할
 지사로 논벽성이 십수만이라 하리 후스적은 다 삼국지에 잇고 서천을 취하야 현덕은 소

열황데 되고 공명은 승상이 되어 혼동을 이어 통일하랴나 뉘쉬임의 정하였는지라 공
 명이 갈여진충하야삼고지은을 갑호려하다가 주성이오 장원에 떠러지니 엿지슬푸지
 아니하리오 황부인스적은 숨국지에 업는고로디강의록하노라

.....

여러분께 속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을 보신 후 또 잠이 잇는 소설을 보시라면 「금강문」 「금
 국화」 「춘몽」 「릉라도」 「사랑의恨」 을 보십시오 참으로 잠이 잇습니
 다 잊지마시고 경성종로 「박문서관」 으로 주문하야 주십시오 신속히
 발송합니다

● 九死一生	二十五錢
● 哀淚夢	二十五錢
● 情男美女	二十五錢
● 最新日 鮮流行 梧桐나무창가	六十錢
● 現代 流行 新式唱歌	四十錢
● 新式 流行 세동무唱歌	五十錢
● 最新流 行新式 노래가락唱歌	五十錢
● 新式日鮮唱歌	四十錢
● 一般 流行 世界一周唱歌	五十錢
● 一般 流行 거북선唱歌集	十八錢

振替京城二〇三三八番

不許
複製

운세에기	百牧譚演	心理學	探值世界	카르뎀	괴랑세	우오래	運命	龍中鳥	아리랑	流淚	朝鮮童謠選集	등기도	萬里宮城	月宮長城	百萬長者	辛酉實愛	三昌芳草	異性的淚	夢의淚	洞房花燭	山中奇緣	哀淚月	一輪明月	桑田碧海	仁祖大王	端宗大王	青春의夢	조나라의	胡나라의	運命의指環	永逸의夢想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llegible]

世界俗談 生命의 본
사로매 강능추월
강남홍전 궁목화
궁산명월 구의산
금상침화 안에성

冊	冊	冊	冊	冊	冊	冊	冊	冊
三	三	五	二	四	三	二	五	一
十	十	十	十	十	十	十	十	十
錢	錢	錢	錢	錢	錢	錢	錢	錢

금강논
금강화
검중화
금강산실기
보심록
금향정기
김태자
단산봉화
쌍옥적
소양강

冊冊冊冊冊冊冊冊冊冊
二二三七三二二四四
十五十五十五十五
錢錢錢錢錢錢錢錢錢錢

이순신
리화몽
란봉괴합
류목의한
마상루
박명화
방화수류집
비괴성
우중행인
쌍옥루

三	冊	冊	冊	冊	冊	冊	冊	冊	冊
一	五	五	三	二	二	二	三	二	三
十	十	十	十	十五	十	十	十	十五	十
圓	錢	錢	錢	錢	錢	錢	錢	錢	錢

「오」로만多少를不拘하고注文하시
「여」代金引換迅速仰呈하옵니다

振替京城二〇二三番
電話光化門一一六九番

新舊書籍
都賣散賣


 博
 文
 書
 館

○各種書籍을特別히淸廉한價格으로買入하시
「라면반다시親切酬應하는」

新字典
尺牘大方
新式金玉尺牘
新家庭尺牘
진주예송
日語自通
遠修國語讀本
中等唱歌集
最新唱歌
教育唱歌集
樂典大要

冊	冊	冊	冊	冊	冊	冊	冊	冊
五	三	五	一圓	五	五	四	五	一圓
十	十	十	三十	十	十	十	十	三十
錢	錢	錢	錢	錢	錢	錢	錢	錢

商業簿記
養鷄及養蜂法
算學通編
十分間活
健康生活
四柱自解月形圖
天機大要
單方新編
實用作文法
이리랑歌謠集
새동구唱歌集

冊冊冊冊冊冊冊冊冊冊
五三七四四八一六一七一
十十十十十十十十十
錢錢錢錢錢錢錢錢錢錢

哀史	虛榮	康明花傳	最後的握手	海底的秘審	赤手袋	七眞珠	午子的到	月世界的旅行	笑이會
----	----	------	-------	-------	-----	-----	------	--------	-----

冊冊冊冊冊冊冊冊冊冊
三五四四三七二三四二六
十十十十五十五十五十
錢錢錢錢錢錢錢錢錢錢